

어느 신참 판사가 겪은 황당 사건

태평로

최원규

논설위원



대형 로펌 변호사로 있다가 지난해 판사가 된 사람이 얼마 전 겪은 일이다. 수도권 법원 민사합의부에 배치된 그는 일주일에 6건가량을 선고했다고 한다. 대단한 사망량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로펌에서 일하던 정도만 하면 간단한 사건들은 그 정도 선고할 수 있을 것 같았다고 한다. 그런데 동료 배석판사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에게 “그러면 안 된다” “당신이 그러면 우리 뭐가 되느냐”고 했다고 한다. 전국 법원 민사합의부에서 불문율로 자리 잡은 ‘일주일에 3건 선고’ 료를 깬다는 것이다. 당황한 그는 왕따가 될까봐 선고 건수를 절반으로 줄였다. 동료 판사들의 ‘하향 평준화’ 요구에 맞춘 것이다. 무조건 선고를 빨리 한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 ‘3건 료’는 지난 ‘김명수 사법부’에서 생긴 것이다. 워라벨을 중시하는 배석판사들이 야근을 밥 먹듯 했던 과거 근무 관행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만들었고, 이들을 이끄는 부장판사들은 “어쩔 수 없다”며 묵인했다. 판사들이 사실상 일 적게 하라고 답했던 것이다.

그러더니 이젠 그걸 지키지 않는다고 동료 판사들 압박하는 일까지 생겼다. 판사들이 이래도 되나. 이례적인 경우일 수 있지만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자체가 심각한 문제다.

사실 아주 복잡한 사건은 일주일에 한 건 선고하기도 어렵다. 문제는 정량적으로 3건 료를 정한 데 있다. 판사들이 그 수치를 맞추려고 쉬운 사건만 먼저 선고하게 돼 자연스럽게 장기 미제 사건이 늘게 된 것이다. 2년 내에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장기 미제 민사 사건이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5년간

신참 판사가 한 주에 6건 선고하자 동료 판사들 “그러면 안 된다” “3건 료 내세워 하향 평준화 요구 사건 처리 담합하더니 압박까지

3배로 늘어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같은 기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에서 5년 넘게 판결을 내리지 않은 ‘초장기 미제’ 사건도 5배가량 늘었다. 판사는 편해졌지만 사건 당사자들은 재판 지연으로 고통받게 된 것이다. 지금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판사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판사들이는 그 또한 사실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속·공정한 재판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 분위기를 깨지 않으면 재판 지연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

과거 법원은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로

판사들을 돌려왔다. 능력 있고 성실한 동료 판사들을 차관급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시키는 제도였다. 하지만 사법 관료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어 결국 김 전 대법원장 때 폐지됐다. 장단점이 분명한 제도여서 되살리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제대로 판사들을 평정해 연임·보직·전보 등 인사에서 이익과 불이익을 주면 된다.

법원조직법에도 판사 평정을 실시해 그 결과를 인사 관리에 반영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김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장들이 판사 투표로 뽑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실시하면서 평정권자인 법원장들이 판사들 눈치 보느라 평정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니 워라벨에만 관심 두는 판사가 늘어나고, 사망량 같고 일하는 판사들은 “문제 법관을 걸러내지 못하는 상황에 힘이 빠진다”고 한 것이다. 더구나 우리법·인권법 출신 등 특정 성향 판사들만 중용하는 ‘코드 인사’로 일선 판사들의 박탈감을 더 커졌다. 법원장들이 평정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법대로 해야 한다.

판사들도 ‘3건 료’를 폐지해야 한다. 이 건 압축적인 료일 뿐이어서 판사들이 없애겠다고 하면 그만이다. 신속·공정한 재판은 헌법이 규정한 판사의 책무인데 이런 료가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판사는 단순한 직업인이 아니다. 국가를 지탱하는 사법의 중추다. 그런 사명감을 판사들이 회복했으면 한다.

김준의 맛과 섬 [172]

포항 구룡포 백고둥 구이

제주바다에 소라, 서해에 피랴고둥이 있다면, 동해에는 물레고둥이 있다. 서식지가 다르니 맛이 다를 수밖에 없다. 연체동물 중 가장 종 수가 많은 복족류에 속한다. 이동 거리가 짧은 한정된 서식지에서 먹을 것을 얻어야 한다. 서식지의 특성에 따라 맛이 다르다. 바다생물만 그렇까. 물레고둥은 동해 심해의 사니질 어장에 서식하며 죽은 어류를 먹는 대형 고둥이다. 구룡포 어민들은 ‘백고둥’이라 부르며, ‘참갈뱅이’라고도 한다. 고둥은 선사시대부터 유용한 식량 자원이었다.

물레고둥을 처음 맛본 곳은 ‘일본인 가족 거리’로 알려진 구룡포 뒷골목이다. 어둠이 일찍 내리는 겨울 허름한 숙소를 잡아 두고, 불빛을 따라 찾아간 웅장한 식당이었다. 그곳에서 처음

들어본 ‘백고둥 회’를 시켰다. 그 값이 고래 고기만큼 비쌌다. 부드럽고 달짝지근하면서 식감마저 좋았다. 그리고 8년 후, 같은 장소에서 다시 백고둥을 만났다. 권선희 ‘구룡포 시인’ 이 안 내한 집이었다. 이번에는 구이로 주문했다. 그사이 고래고기는 메뉴에서 사라지고 백고둥은 가격 대신 ‘시세’라고 적혀 있었다. 우리는 물레고둥을 구이나 무침으로 먹지만, 일본은 회와 초밥으로 즐긴다.

물레고둥은 통발에 청어나 쪼갠 미끼로 넣어 잡는다. 수심은 대개 나 피문어가 서식하는 조건과 비슷하다. 통발은 그물과 함께 수심이 깊은 동해안의 요긴한 어구이다. 일반적으로 한 사람은 미리 바다에 넣어 놓은 통발을 올리고, 남은 사람은 통발에 미끼를 넣어



차곡차곡 쌓아 다음 조업을 준비한다. 구룡포시장에서 만난 상인이 비슷한 황고둥과 흑고둥이 백고둥으로 둔갑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알려주었다. 황고둥은 백고둥에 비해서 껍데기가 얇아 잘 부서지고, 흑고둥은 껍데기가 검은 색이다. 흑고둥과 달리 백고둥과 황고둥은 구별이 어렵다. 가격은 흑고둥보다 황고둥이, 황고둥보다 백고둥이 각각 두세 배 비싸다. 시장에서 골질 둔갑하는 이유다. 백고둥 내장은 녹진하고 고소하다. 권 시인은 삶은 내게 권하고, 내장을 즐기면서 탈이 나지 않는 고둥이라고 알려줬다. 전남대 학술연구교수

社 說

李 선거법 재판 16개월 끝다 사표, 강규태 판사의 사법 능력 가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강규태 부장판사가 다음 달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냈다고 한다. 이 사건 재판을 16개월을 끝다 선고도 안 한 상태에서 사표를 낸 것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1심을 6개월 내에 끝내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강 부장판사는 이미 10개월 동안 위법을 저질렀다. 판사로서 일말의 책임감이나 양심이 있었다면 늦어도 선고는 자신이 해야 한다. 그런데 선고는 고사하고 재판도 마무리하지 않은 채 사표를 내 버렸다. 중요 사건 재판장이 이 정도로 무책임한 행태를 보인 것은 유례가 드물다.

사건이 복잡한 것도 아니다. 이 사건은 지난 대선 때 이 대표가 대장동 핵심 실무자를 몰랐다고 하고,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이 이뤄졌다고 말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이 대표가 몰랐다고 한 대장동 실무자와 외국 여행가 같이 골프를 한 사실 등이 다 드러나 있다. 오래 걸릴 재판이 아니다. 그런데 강 부장판사는 정식 재판에 앞서 사건 쟁점을 정리하는 공판 준비 절차를 6개월이나 진행했고, 처음부터 ‘2주에 1회’씩 재판 기일을 잡았다. 작년 8월 이후엔 이 대표의 단식 등을 이유로 재판을 두 달 넘게 미뤄주기도 했다. 작년 10월엔 ‘주 1회 재판을 고려해 달라’는 검찰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를 한다면 이 대표에게 죄를 내리지 않을 수 없으니 애초부터 선고를 안 하려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강 부장판사와 함께 이 재판부 배석 판사 2명도 다음 달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통상 형사합의부 재

판장은 2년, 배석 판사는 해마다 교체하는 법원 내규 때문이다. 중요 사건 재판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나 진술의 누앙스 등도 판사의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데 재판부가 통째로 바뀌면 이런 과정이 다 끊기고 재판은 더 늘어갈 게 된다. 이 자체가 불의이다. 이 사건 재판의 진행 과정을 보면 이것은 불의를 넘어서 사법 농단, 사법 능력에 해당한다.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대장동 민간 업자들이 재판하고 있는 재판부도 다음 달 교체 대상이고,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비리 사건 재판장도 내년 2월 교체 대상이다. 대장동·백현동 비리 사건은 수사 기록만 수백 권에 달해 내년 2월까지 선고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 그러면 이 재판부들도 선고를 못 한 상태에서 떠날 수 있다. 판사들이 재판하는 척 시늉만 하고 선고를 후임 재판부에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가 곳곳에서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법원 내규를 바꾸고 형사 전담 법관을 두는 등 대법원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대표 구속영장 심사를 맡은 판사는 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을 기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논리와 법리가 명확해야 한다. 그런데 그 가세한 법리는 사람들을 의아하게 만들었다. 이 대표 사건 관련 자 20여 명이 구속됐는데 정작 본인 영장이 기각된 것도 납득하기 어려웠다. 그러더니 이번엔 상식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허위 사실 공표 사건 재판장이 선고를 앞두고 사표를 내고 도망치듯 했다. 지금 이 대표 측은 재판을 지연하려고 갖은 수단을 동원해 사법 제도를 농락하고 있다. 강규태 판사는 이 사법 농락에 가담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 ‘헬러인 특조위’ 강행, 제2의 ‘세월호 특조위’ 불 보듯

민주당이 9일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단독 처리했다.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최장 1년 6개월 동안 사건 진상을 다시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이 사건 진상이 궁금해 특조위를 만들자는 것은 물론 아닐 것이다.

헬러인 참사는 사고 원인과 책임자가 이미 다 밝혀져 있다. ‘좁은 골목에 감당할 수 없는 인파가 몰려 넘어지면서 참사가 벌어졌다’는 경찰 조사 결과 외에 달리 나올 만한 ‘진상’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현장 관리와 예방, 대응을 제대로 못한 서울경찰청장·용산시장·구청장 등 23명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가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이 일로 행안부 장관을 탄핵 소추까지 했지만 현재는 전원 일치를 기각했다. 55일간 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국정조사에서도 새로 나온 게 없었다. 있을 리가 없다. 그런데 또 특별법을 만들어 특별 조사를 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법 시행을 총선 이후로 미뤘으니 선거용이 아니라고 한

다. 하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를 ‘규탄’ 한다며 서거 쟁점화할 것이다.

민주당은 세월호 참사 때도 특조위와 사찰위원 등을 만들어 8년간 9차례에 걸쳐 진상 조사를 벌였다. 여기에 민변과 진보 단체, 노동계 등 친민주당 인사가 대거 들어갔다. 이들은 7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썼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은 역대 연봉을 받았다. 그런데 아무 결과도 없다. 운동권 일자리를 만들고 월급 준 것밖에 되지 않았다. 헬러인 특조위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참사 피해자 지원, 재발 방지 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데 세월호 특조위가 없는 진상을 규명한다며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가운데 해난 사고는 늘어났다. 참사가 벌어진 이태원 일대는 1년이 지나자 인파가 다시 몰리고 소방차와 구급차 진입을 막는 불법 주차도 늘었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런 문제를 바로잡는 데 신경을 쓴 적이 없다.

현직 신분으로 정치판 뛰어드는 검사들

대전고검 김상민 검사가 어제 경남 창원에서 총선 출마 회견을 갖고 국민의힘 예비 후보로 등록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던 작년 추석쯤 동향 사람들에게 “뽕까지 차원 사람” “희망과 목표를 드리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 국회에서 문제가 됐다. 작년 말 검찰에서 경고 처분을 내리자 사표를 내고 출판 기념회를 예고했다. 검찰총장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출마를 강행한 것이다. 이런 사람이 검사로서 어떻게 법 집행을 했는지 의문이다.

지난 정부에서 친문재인 검사로 꼽힌 이성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신성식 연구위원도 얼마 전 출판 기념회를 여는 등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두 사람은 모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법

에 따라 기소된 공무원의 사표는 수리되지 않는다. 김상민 검사와 마찬가지로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에 나오려는 것이다.

선거법에 따라 공직자는 총선 90일 전인 1월 11일까지 사표가 수리되지 않으면 출마할 수 없다. 그런데 2021년 대법원이 현직 경찰 신분으로 출마해 당선된 황운하씨의 의원직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는 출마 전 사표를 냈지만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검찰에 기소돼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따라 검사뿐 아니라 경찰, 판사 등 다른 공직자들도 이 대법원 판례를 이용해 사표만 내고 출마를 강행할 수 있다. 이런 풍조가 공직 사회에 여러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 이를 막을 최소한의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

“이재명 일당의 위선 더는 못봐주겠다” 부산이 들끓고 있다

뉴데일리 newdaily.co.kr

부산대 학생들이 이재명 일당 규탄하고 나섰다
부산 시민들도 공감하고 있다
전국 의료인들도 분노하고 있다
서울대병원과 죽대 없는 사법부를 규탄한다

부산, 열 받았다

“1979년 10월 16일 오전 10시, 부산대 학생들 수천 명이 교내에서 유신반대 시위를 벌였다. 오후 2시부터 부산 도심에서 학생들의 시위가 시민들의 열렬한 지지 속에 전개되었다.”
-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편 <부마항쟁>의 한 대목

이런 부산대 학생들이 최근엔 투쟁의 예봉을 이재명과 그의 사당(私黨)에 들였다.

이재명이 부산대학생원을 마다하고 헬기를 불러 서울대 학생원으로 가져, 부산대 학생들은 “부산을 무시하는 거냐? (내년 총선 때) 절대 안 뽑는다.”라고 규탄했다.

표면상 1979년의 그들의 [부마항쟁]과, 2024년의 그들의 [이재명 비판]은 서로 다른 것으로 비칠 수도 있다. 그러나 20대 대학생들의 순수한 반항을 그렇게 도식적인 이분법으로만 가를 필요는 없다.

20대의 뜨거운 피는 모든 종류의 위선을 향해 끓어오른다. 그리고 위선은 그때그때의 시대 상황에 따라 우(右)의 것이기도 하고 좌(左)의 것이기도 하다.

‘이재명 일당’의 입상 짓

1979년의 유신(維新) 권력은 운동권만의 표적이 아니었다. ☆ 자유주의자 ☆ 고도성장의 수혜층인 신(新)중산층 ☆ 보수 기독교도 ☆ 한미 우호 중시파 ☆ 국제시장 상인들까지 유신 부작용에 비판적이었다. 부산대 학생들은 특정 운동과는 무관하게, 당시의 그런 보편적 국민 정서를 반영했다.

그 보편적 국민 정서가 2024년엔 이재명 일당의 끝도 없는 [입상 짓]을 향해 폭발했다. 1979년의 부산대 학생들과, 2024년의 부산대 학생들은 결국 [똑같은 위선]을 향해 [똑같이 반항한 것]이었다.

국제시장 상인들은 1979년의 시위 대학생들에게 물병을 던지주며, 그들을 진입자들의 눈초리로부터 숨겨주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재명을 보냈다고 한 서울대학생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한 부산대학생원의 폭로에, 오늘의 부산 시민들은 뜨겁게 공감했다.

‘김명수 사법부 진당’의 해괴한 결정

전국 각지의 의료인들도 격한 연세반응을 일으켰다. 부산경남강원광주대전울산평택전북 의사회가 들고 일어났다. 그들은 이재명 민주당과 서울대학생원의 어이없는 정치적 행태에 경멸으로 맞섰다.

이재명의 위증교사 피고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의 해괴한 도망 역시, 전 국민적 분노를 유발해 싸다. 어떻게 이재명 피습을 듣자마자 공판기일을 그렇게도 재빨리 연기한다 말인가? 역시 [김명수 사법부]라서 그런가?

베네수엘라 차베스 좌익독재도 입법부와 사법부를 장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무엇을 해야 하나

4.10 총선에서도 저들이 행여 다수당이 될 경우, 자유대한민국 체제는 그것으로 수명을 다할 것이다. 어찌할 것인가? 국민이 깨어나는 수밖에 없다.

전체 국민은 부산 시민들의 절망과 희망에 동참하자!
부산대 학생들과 부산 시민들의 저항은 외롭지 않다!
보라, 저 번지는 분노의 메아리들!

자유인들의 치열한 현신만이 대한민국의 존속을 보장한다.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위원 / 전 조선일보 주필



뉴데일리 칼럼 더보기

이재명 일당의 지역-대마-사면화... 부산은 사람 살 곳 아니라고? [이성훈 칼럼]	김정숙에 대한 한동훈의 '90도 할-터 이상' 경멸 당하지 말라! [류근일 칼럼]
2016 호남은 문맹인 거부했었다... 2024 호남도 이재명에게 'No'? [이성훈 칼럼]	이재명 피습 사실 규명은 의료진-수사당국 소관-민주당, 나서지 말라! [류근일 칼럼]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2024년 1월 5일 게재 되었습니다.